

# 10건 중 2건이 전남...농기계 교통사고 발생을 전국 최고

2019~2023 5년간 365건...전국 사망자의 14.5%인 53명 사망  
고흥 46건 가장 많고 강진·장흥 順...농기계 경운기 사고가 33.5%  
고령 운전자·낙후된 도로 환경 등 원인...고령 농민 안전대책 시급

전남 지역의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령 운전자 비중과 낙후된 농촌 도로 환경이 겹치면서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분석과 함께, 영농철을 앞두고 전남 고령층 농민들의 농기계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강명구(경북 구미시 을)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전남의 농기계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65건으로 전체 1795건 중 20.3%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이 305건으로 16.9%, 충남·경남이 219건으로 12.2%로 나타났다.

전남의 연도별 농기계 교통사고는 2019년 98건 발생해 12명이 사망했다. 2020년에는 63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졌다.

2021년에는 74건이 발생해 14명이 사망했고, 2022년에는 67건이 발생해 7명이, 2023년에는 63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졌다.

지난해에도 전남에서는 총 47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이 기간 전국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27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3명(14.52%)이 전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고흥이 46건(사망 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강진이 30건(사망 5명), 장흥 29건(사망 3명), 나주 27건(사망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차사율은 완도가 35%로 가장 높았고, 무안이 22.2%, 여수가 21.43%를 기록했다.

전국 농기계 종류별로는 2019~2021~2023년 등

3년간을 기준으로 경운기 사고가 33.5%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트랙터(15.8%), 예취기(11.1%), 관리기(9.3%) 등이 뒤따랐다. 콤바인·이앙기·SS기(주행식고속동력분무기) 등을 포함한 기타 기종 사고도 30.1%를 차지했다.

또 농기계 교통사고 운전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발생건이 전국 1312건으로 전체 73%를 차지하면서 전국 고령화를 1위인 전남이 농기계 사고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음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남에서는 농민들이 농기계를 몰다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장성군 황룡면에서 감나무 밑에 농약을 치던 80대 농민이 자동농약살포기와 나무가지 사이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지난달 26일에는 해남군 마산면의 한 배추밭에서 밭일을 하던 50대가 트랙터를 점검하다 로터리 날에 끼여 숨졌으며, 같은 달 19일 강진군 마량면에서는 경운기를 몰고 장을 보러 가던 80대 운전자가 경운기 적재함 밑에 깔려 숨졌다. 같은 달 17일 영암군에서는 감나무밭에서 농약을 치던 80대 농부가 농약 살포기와 나무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 7월 13일에는 여수 화양면 한 밭을 가는 로터리 작업 중 70대 남성이 경운기를 몰고 후진을 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 강명구 의원은 “농촌 고령화로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의 위험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맞춤형 안전교육, 보조장치 보급, 농로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웃 나와라”...즐거운 한가위 경로잔치 18일 광주시 북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한가위 경로잔치’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어르신들과 우산 어린이집 아이들이 웃노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가장 뜨거웠던 올 여름...광주 기후변화 영향 가장 많이 받았다

기후전환지수 2단계 이상 63일

전국적으로 역대급 무더위가 이어졌던 올 여름(6~8월), 광주 지역은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7일 국제 비영리 기후 분석기관 ‘클라이밋 센트럴’이 발간한 ‘기후 변화에 노출된 사람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여름철 평균 기온은 평년(1991~2020년)보다 1.9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은 6~8월 총 일수 92일 중 53일 동안 ‘기후전환지수’가 2단계 이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

다. 기후전환지수는 기후 변화가 기상 현상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단계에서 5단계로 나뉘며 5단계에 가까울수록 기후 변화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여름철 폭염 발생일의 기후전환지수가 2단계 이상일 경우, 기후변화가 폭염 발생 가능성을 2배 이상 높였다는 것을 뜻한다.

광주의 기후전환지수가 2단계 이상으로 오른 날이 63일(전체 여름 일수의 68.5%)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수였다. 광주 외에는 인천(59일), 서울(54일) 순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로 한반도 여름 기온은 지속 상승할

전망이며, 2100년께에는 폭염 일수가 지금보다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18일 환경부가 발간한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에 따르면 21세기 말(2081~2100)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따라 최대 7.0도(매우 높은 단계 기후변화 시나리오, SSP5-8.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 경우 폭염 발생 확률은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보고서에는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요 양식장이 밀집된 해역의 수온도 4~5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담겼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수확기 전남 들녘 벼 깨씨무늬병 확산 비상

평년 두배 3522ha 피해 발생

전남 일대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대규모로 확산해 농가가 비상에 걸렸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 10일 기준 벼 관찰포 조사 결과 전남 지역 벼 재배지 중 3522ha에서 깨씨무늬병 피해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평년 깨씨무늬병 발병 면적인 1772여ha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자, 전남 지역 총 재배면적(14만 2443ha)의 2.4%에 해당한다.

깨씨무늬병은 특히 화순군(845.6ha), 순천시(510.5ha), 보성군(362.5ha), 장흥군(261.5ha)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깨씨무늬병은 벼 잎에 반점이 생긴 뒤 누렇게 말

라 죽게 만드는 곰팡이성 병해로, 발병 시 벼의 수확량과 품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농기원은 올해 벼 병해충은 평년에 비해 적은 편이나, 깨씨무늬병에 한해 평년을 웃도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기원은 깨씨무늬병이 땅심(지력)이 부족할 때, 특히 사질토·간척지 등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이라고 설명했다.

농기원 관계자는 “깨씨무늬병이 발병하는 데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어 원인을 한 가지로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근 들어 지력 소모가 심한 농업 방식이 이뤄지는 가운데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후로 땅 속 영양분이 씻겨나가는 등 이유로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 중이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창고형약국 위해성 대책 전까지 개설 멈춰라”

광주약사회 시의회서 긴급 기자회견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 추진에 지역 약사회가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역 약국 700곳과 약사 1400여 명으로 구성된 광주시약사회는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고형약국의 위해성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개설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생필품처럼 대량 구매와 저가 판매를 전제로 하는 ‘창고형’ 유통·진열 방식이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복약지도와 부작용 관리가 무력화돼 시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가 이미 ‘100명 이상 대규모 약국’에 대한 제도 준비를 제안했는데, 현행 약사법에는 창고형약국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없어 제도 공백 상태라는 문제의식도 제기했다.

지역 약사들은 개설 준비 중인 약국이 주차 전용 건물을 용도변경해 들어설 경우 주변 상권과 주거지역에 교통혼잡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인근 700여 약국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약사들은 창고형약국의 위해성과 유통질서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가이드라인이 확정될 때까지 광산구가 개설 허가를 유보할 것과 대량진열·할인 판매가 초래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 차단 대책을 구제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납입  
전 국민의 경제부담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알바 땀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SEoul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Marine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IGFA 보험GA협회  
대한보험업자협회